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의 혐오 표현’ 경험!

혐오 표현은 더 이상 일부 극단적인 사람들만의 언어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 식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52%)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성인 국민 3명 중 2명(65%)은 최근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가 온라인 공간을 넘어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혐오의 일상화는 학교 교실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전교조)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9명(89%)이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직접 목격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응답했다. 혐오 표현은 사적인 대화를 넘어 수업과 과제 발표 자료 등 공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치적 중립 논란, 민원 우려 등으로 지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혐오 표현에 ‘항상 대응한다’는 교사는 14%에 불과했다. 문제의 심각성(80% 이상)에 대한 높은 인식과 실제 대응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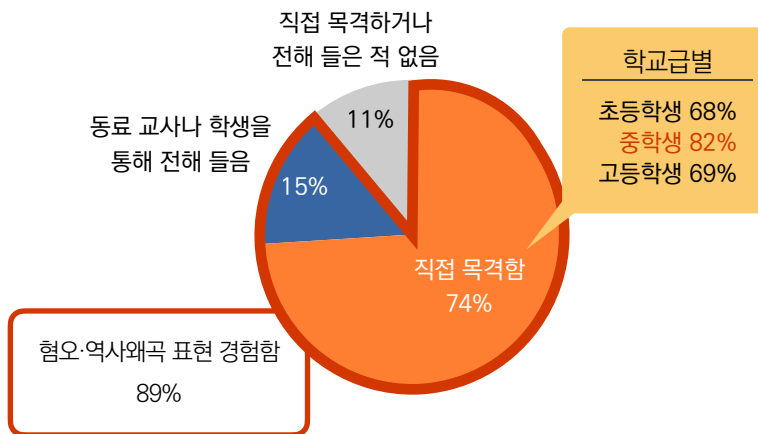
이번 <넘버즈 344호>에서는 사회 전반에 침투한 혐오 표현의 실태부터 교실 현장의 청소년들이 처한 위기, 그리고 현장지도의 한계까지 다각도 분석한다. 자극적인 혐오 언어에 무감각해진 청소년 세대를 온전한 언어와 공감의 길로 이끌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는 개신교를 기독교로 천주교는 가톨릭으로 기재합니다.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의 혐오·역사왜곡 표현' 경험!

- 학교 내 청소년들의 혐오 표현 실태를 살펴본다. 최근 1년간 학생들의 발언, 발표 등에서 혐오·역사왜곡 표현을 접한 경험을 묻은 결과, 교사 대다수인 89%가 직접 목격(74%) 또는 동료 교사·학생을 통해 전해 들은 것(15%)으로 나타났다. 이는 혐오 표현 문제가 학교 현장에 깊숙이 침투해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특히 '직접 목격했다'는 응답을 학교급별로 분석해보면 중학생(82%)이 초등학생(68%)이나 고등학생(69%)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학생 집단에서 학생들의 혐오 표현 노출 및 사용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그림] 최근 1년간 학생들의 혐오·역사왜곡 표현 접한 경험 (교사, N=1,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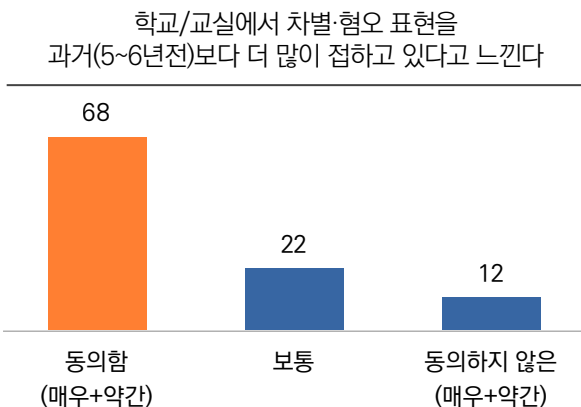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중·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교사 68%, 5~6년 전보다 교실 내 혐오 표현 늘었다!

- 또 다른 보고서인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를 통해 혐오 표현 증가 체감도를 살펴본다. 교사들에게 5~6년 전 과거 대비 학교/교실에서 혐오 표현을 더 많이 접하고 있는지를 묻은 결과, 교사 10명 중 7명에 달하는 68%가 '그렇다(매우+약간 동의)'고 응답했고,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이는 교실 내 혐오 표현 양상이 과거에 비해 한층 심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5~6년 전 대비 혐오 표현 증가 체감도 (교사, N=200, %)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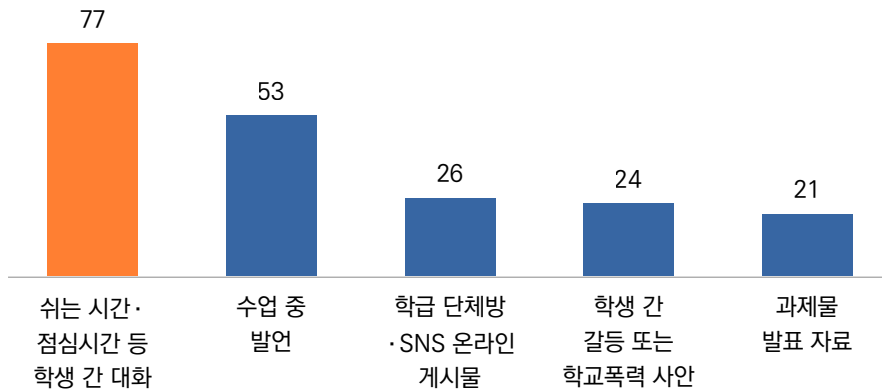
*5점 척도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학생들의 혐오 표현, 수업 중 발언(53%)까지 일상화!

-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접한 구체적인 상황을 묻은 결과, '쉬는 시간 · 점심시간 등 학생 간 사적인 대화'가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업 중 발언'(53%), '학급 단체방 · SNS 온라인 게시물'(26%) 등의 순이었으며, '과제물 발표 자료'에서 접한 경우도 21%였다.
- 이는 사적인 영역을 넘어 수업과 과제 등 공적인 학습 공간에까지 혐오 표현이 일상화되어 있는 학교 현실을 보여 준다.

[그림] 혐오 표현을 접한 구체적 상황 (교사, 중복응답, 상위 5개, N=1,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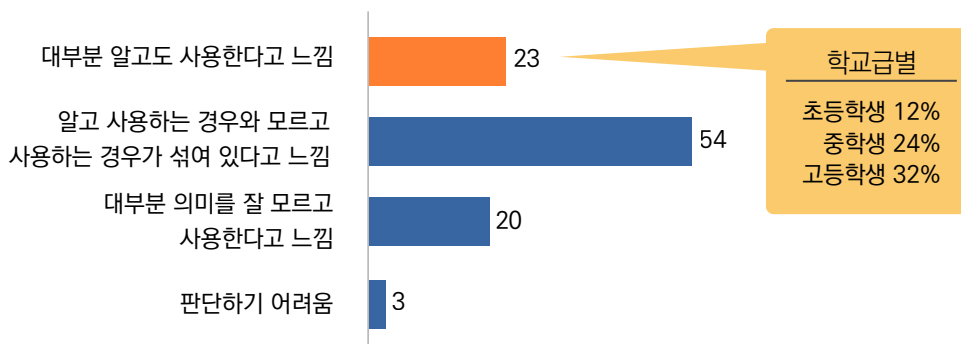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중·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고등학생 3명 중 1명, 혐오 표현 의미 알면서도 사용!

- 학생들이 혐오 표현의 의미를 인지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 전체 교사의 54%는 '알고 사용하는 경우와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섞여 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 알고도 사용한다'는 23%였다.
- 특히 '대부분 알고도 사용한다'는 응답은 초등학생 12%, 중학생 24%, 고등학생 32%로 학교급이 올라감에 따라 뚜렷이 증가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혐오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학생들의 혐오 표현 의미 인지 여부 (교사, N=1,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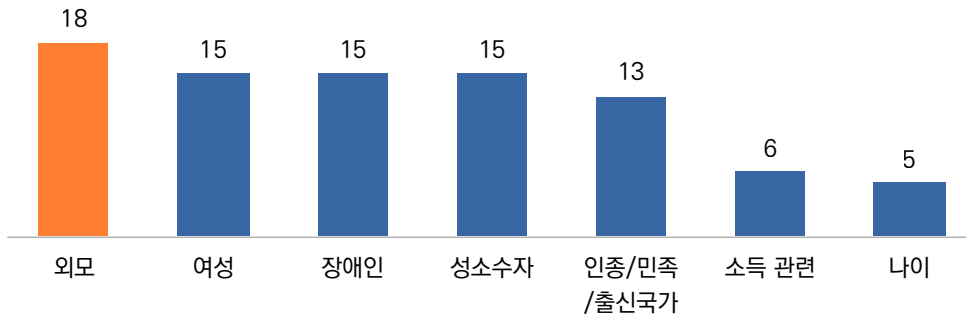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 · 역사왜곡 표현 교사 · 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중·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교사가 주로 접하는 혐오 표현, 외모부터 사회적 약자까지 광범위!

- 교사가 주로 접하는 혐오 표현 유형으로는 ‘외모’ 관련이 1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여성’(15%), ‘장애인’(15%), ‘성소수자’(15%)가 비슷한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 외모 관련 혐오 표현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은 신체적 변화가 활발하고, 외모에 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기 발달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림] 교사가 주로 접하는 혐오 표현 유형 (교사, 중복응답, 상위 7개, N=2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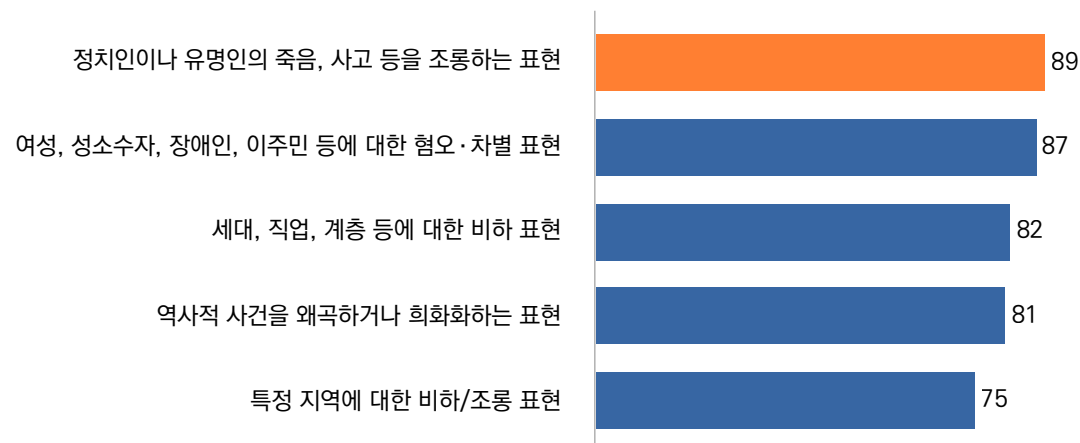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교사 10명 중 8명 이상, ‘유명인의 죽음 조롱’ 등 다양한 혐오 접했다!

- 이번에는 최근 1년간 교사가 접한 혐오 표현의 유형별 경험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사 10명 중 9명에 달하는 89%가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죽음, 사고 등을 조롱하는 표현’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성·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에 대한 혐오·차별 표현’(87%), ‘세대·직업·계층 비하’(82%), ‘역사적 사건 왜곡·희화화’(81%) 등을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교실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었다.

[그림] 최근 1년간 접한 학생들의 혐오·역사왜곡 표현 유형 (교사, ‘접한 적 있음’ 비율, %)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교실 내 혐오 표현, 고인 조롱부터 소수자 비하까지 ‘놀이’처럼 사용!

- 교사가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례를 살펴보면 고인 조롱, 지역 비하와 역사왜곡, 여성 혐오 등이 교실 현장에서 일종의 놀이나 밈(Meme)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직접 목격했거나 전해 들은 혐오 표현 사례 (교사, 주관식 문항, N=535)

〈고인의 죽음 조롱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조롱)〉

“선생님, 제가 선물 드릴게요. 부엉이 케이크요.”

“과학 수업시간에 중력을 학습할 때 떨어지는 물체를 보며 '운지'라고 하고 키득거립니다.”

“미래 명함만들기 수행평가에 노무현대통령의 사진과 코알라 게임, 운지 캠핑장, 서거일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명함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지역 비하와 5·18 등 역사왜곡〉

“전라도에 가려면 여권들고 가야한다, 전라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흥어흥어 거리며 키득댁니다.”

“5·18민주화운동을 광주폭동으로, 탱크데이 사태 이후 탱크데이 화이팅을 수업시간에 외칩니다.”

〈여성 혐오〉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푸씨, 기모치, 선생님 페미예요? 등등 성차별적 발언을 합니다.”

〈소수자·장애인 혐오〉

“친구간 갈등 상황에서 욕으로 장애인이 아닌 친구에게 장애인이라 부르며 사용하거나 실제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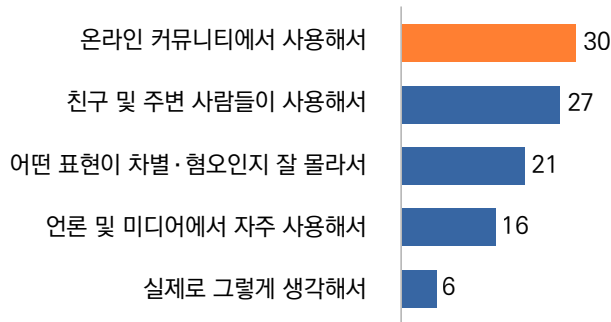
“체육시간에 경기 승부 관련 화 내는 친구에게 분노조절장애새끼라고 부르며 상대방 친구와 장애인을 동시에 비하했습니다.”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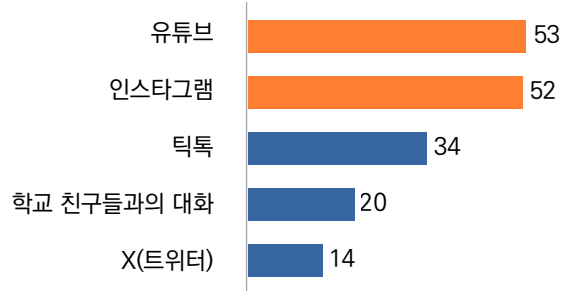
청소년 혐오 표현 원인, ‘온라인 플랫폼’과 ‘친구’ 영향

- 교사들은 청소년이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원인으로 ‘온라인 커뮤니티’(30%)와 ‘친구 및 주변 사람’(27%)의 영향을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차별·혐오 표현인지 몰라서’(21%), ‘언론 및 미디어’(16%) 순이었다.
- 실제로 청소년 혐오 표현·콘텐츠의 주요 접촉 경로를 보면 유튜브(53%)와 인스타그램(52%)이 50%를 넘으며 독보적 1·2위를 차지했고, 틱톡(34%)과 학교 친구들과의 대화(20%)가 뒤를 이었다. 청소년의 혐오 표현이 주로 숏폼·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수용되고 또래 관계를 통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청소년의 혐오 표현 사용 원인 (교사, N=200, %)



[그림] 혐오 표현·콘텐츠의 주요 접촉 경로 (청소년, 상위 5개, N=1,636, %)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03

[대응 및 과제]

교사 80% 이상 ‘혐오 표현 심각’, 그러나 실제 적극 대응은 14%뿐!

- 교사 대다수는 ‘사회적 혐오 표현 문제’(95%)와 ‘학교 내 혐오 표현 문제’(85%)가 심각하다고 높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 그러나 교실 현장에서 혐오 표현에 실제 대응하는 비율은 53%에 그쳤으며, ‘항상 대응한다’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교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 지도 및 대응으로 이어지는 데는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사회적 혐오 표현 문제 심각성 인식-실행 격차 (교사, N=200, 각 문항별 ‘매우+약간’/‘항상+자주’ 동의율*, %)



※출처 : 한국다양성연구소, ‘청소년 혐오 표현 대응 인식-실행 간극 해소 방안 연구보고서’, 2025.11.01.(전국 초중고 교사 200명, 온라인 조사, 2025.07.11.~07.25.)

*5점 척도

**본래 제시문은 아래와 같음.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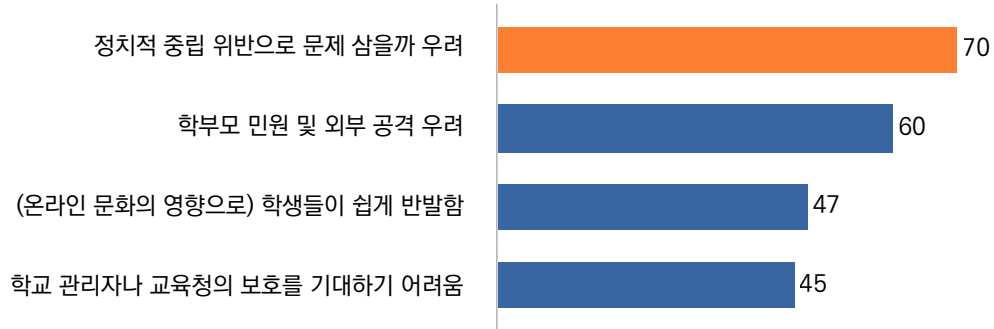
학교/교실에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Note) 본 설문문의 ‘사회적 혐오 표현’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차별, 폭력, 억압을 유지/강화하는 표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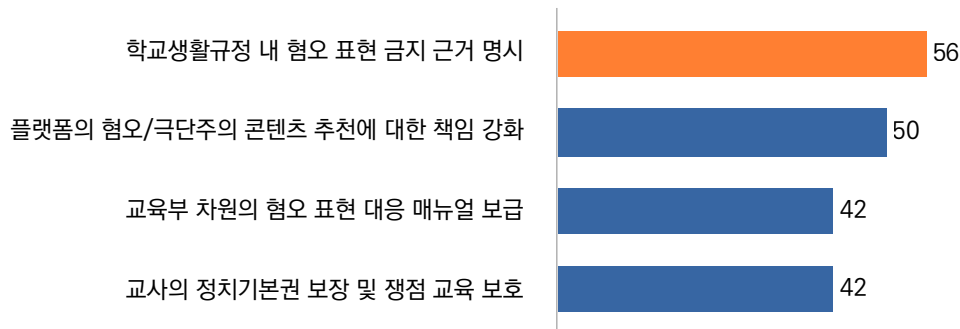
교사 56%, ‘학교생활규정에 혐오 표현 금지 명시’ 필요해!

- 교사들은 혐오 표현을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 우려’(70%)를 꼽았다. 이어 ‘학부모 민원 및 외부 공격 우려’(60%), ‘학생들의 반발’(47%), ‘관리자/교육청의 보호 미흡’(45%) 순으로 나타나, 외부 시선과 민원에 대한 부담이 적극적 지도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작용했다.
- 이에 따른 시급한 대책으로는 ‘학교생활규정 내 금지 근거 명시’(56%)와 ‘플랫폼의 혐오 콘텐츠 추천에 대한 책임 강화’(50%)를 절반 이상이 요구했다. 또 ‘교육부 차원의 대응 매뉴얼 보급’(42%)과 ‘교사의 쟁점 교육 보호’(42%)가 뒤를 이어, 명확한 제도적 근거 마련과 플랫폼 기업의 윤리적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그림] 교육적으로 지도하기 어려운 요인 (교사, 중복응답, 상위 4개, N=1,109, %)



[그림] 시급한 대책 순위 (교사, 3순위 필수 응답, 상위 4개, N=1,1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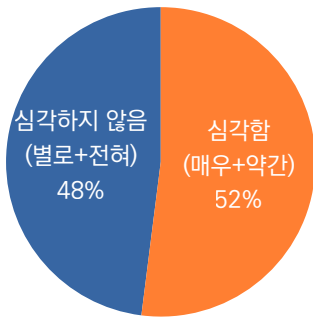


※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보도자료, ‘혐오·역사왜곡 표현 교사·청소년 인식 조사’ 결과 발표, 2026.07.07.(전국 초·중·고 교사 1,109명, 초6~고3 청소년 1,636명, 온라인 조사, 2026.07.02.~07.06.)

국민 절반 이상(52%), '우리 사회 혐오 표현 심각'!

-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심각성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52%)이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응답했다.

[그림]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의 심각성 인식
(일반국민, N=17,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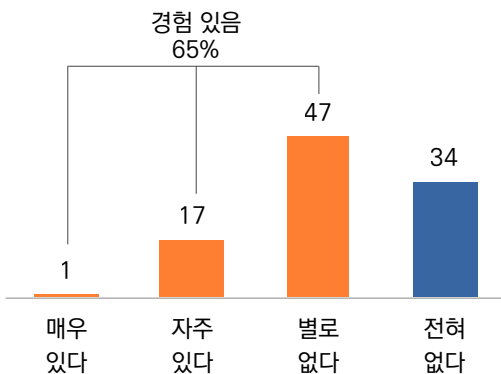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2025.11.(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7,045명, 면접조사, 2025.07.~202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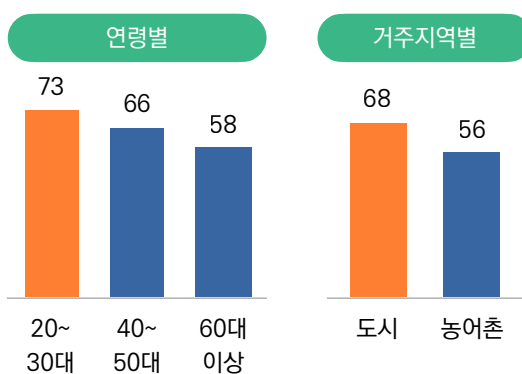
성인 국민 3명 중 2명, 최근 1년간 혐오 표현 접했다!

- 최근 1년 동안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국민의 65%로 나타났다. 즉, 성인 국민 3명 중 2명은 빈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에서 혐오 표현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 특히 혐오 표현 노출 경험은 20~30대 73%, 40~50대 66%, 60대 이상 58%로, 연령이 낮을수록 혐오 표현을 접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 거주자도 68%로 농어촌 거주자 56%보다 12%p 높았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와 커뮤니티 이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젊은 층과 도시 거주자가 혐오 표현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최근 1년간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
(일반국민, N=17,045, %)



[그림] 응답자 특성별 최근 1년간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은 '경험 있음' 비율 (일반국민, N=17,045, %)



※출처 : 국가인권위원회, 2025년 인권의식실태조사 보고서, 2025.11.(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국민 17,045명, 면접조사, 2025.07.~2025.08.)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이번호 요약

1. 교사 10명 중 9명, '학생들의 혐오 표현' 경험!

최근 1년간 학생들의 발언, 발표 등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경험을 묻은 결과, 교사 대다수인 89%가 직접 목격(74%) 또는 동료 교사·학생을 통해 전해 들은 것(15%)으로 나타났다.

2. 학생들의 혐오 표현, 수업 중 발언(53%)까지 일상화!

학생들의 혐오 표현을 접한 구체적인 상황을 묻은 결과,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 학생 간 사적인 대화'가 7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수업 중 발언'(53%), '학급 단체방·SNS 온라인 게시물'(26%) 등의 순이었다.

3. 교사 80% 이상 '혐오 표현 심각', 그러나 실제 적극 대응은 14%뿐!

교사 대다수는 '사회적 혐오 표현 문제'(95%)와 '학교 내 혐오 표현 문제'(85%)가 심각하다고 응답해 높은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교실 현장에서 혐오 표현에 '항상 대응한다'는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적] 선량한 차별주의자 (창비, 김지혜)

관련 성경 구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

목회 적용점

교실 현장에서 혐오 표현이 단순한 욕설을 넘어 온라인 밈(Meme)과 또래 간 '놀이' 형태로 사용되는 현상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다. 특히 청소년들이 혐오 표현의 의미와 문제점을 알면서도 장난이나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는 태도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혐오를 재미있는 콘텐츠로 재생산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 매체, 그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또래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 청소년의 혐오 언어를 개별 학생의 일탈이나 인성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교회와 지도자들은 혐오 표현이 한 사람의 존엄성과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가르치고, 자극적인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언어·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교회 공동체가 청소년들이 서로를 조롱하거나 낙인찍지 않고, 배려와 존중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는 '건강한 또래 문화의 안전지대'가 되어야 한다.

한편 교사 80% 이상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학부모 민원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학교 내 혐오 표현 대응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사명감이나 지도 역량에만 의존해서 해결할 수 없는 과제다. 교사가 보호받으며 교육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과 대응 매뉴얼이 마련되어야 하며, 학교와 가정, 교회, 플랫폼 기업이 함께 책임지는 범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혐오 언어에 무감각해진 청소년 세대를 존중과 공감의 언어로 이끄는 일은 교사나 교회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